

기술산업화 사회에서의 전문학과 인문학-교양교육

이 광 주 / 인제대 사학과 교수

인간과 문화 전반을 지향하는 인문학-교양교육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단순한 지식, 즉 전문학이란 '빵을 위한 학문'일 뿐, 그것은 '전문 바보'를 낳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더욱더 '욕망의 체계'로 만들고 갈 것이다.

여기서 전문학이란 무엇이고, 인문학-교양교육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대학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1

오르테가 이 가세는 1930년 '대학의 사명'이라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의과대학은 최고도의 생리학과 화학을 가르치고자 한다. 그러나 좋은 의사란 무엇인가. 오늘날 이상적인 의사란 어떠한 의사인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세계 모든 의과대학을 찾아도 없을 것이다." 이 철학자의 말은, 1930년 당시 바야흐로 태동된 기술산업화 사회 고등교육에서의 전문학의 우위

와 그리고 그것과 대비된 인문학 교양교육 위상의 실추에 대한 한탄이요, 경고로서 이해된다.

오르테가 이 가세가 두려워하였던 이 전문학의 우세는 오늘날 의과대학에서뿐만 아니라 법과대학에서도 그리고 모든 대학, 모든 학부, 모든 학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은 1940년대 후반 교수회의에서 '교육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오늘날 대학에서의 교육 부재 현상은 직업적인 전문가 양성과 세분화된 전문학의 연구를 지상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대학의 상황과 표리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다.

앞의 오르테가 이 가세의 말과 관련하여 하버드의 문리과 대학원장인 로소프시키는 하버드 의과전문대학원의 'The new pathway program'은 바로 그러한 '이상적인 의사'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말한 바 있다.

뒤에서 논의하듯이 미국의 대학, 특히 하버드를 비롯한 명문대학은 인문학 중심의 일반교양(general education) 내지 자유학예(liberal arts)를 전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기술과 산업의 메커니즘에 의해 특징지어진 테크놀로지 사회 속에서도 시민적인 공공선을 앞세우는 규범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문학적 교양과 시민적 도덕성 및 폭넓은 지성을 두루 갖춘 엘리트 계층의 존재와 그리고 그들 엘리트 계층을 창출한 미국 교양교육의 존재와 적지 않아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고학력 사회이다. 그간 이 땅의 경제적 발전이 고등교육의 보급과 그것이 배출한 전문가 집단에 크게 힘입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이 낳은 물질적 풍요와 고등교육의 대중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휩쓸고 있는 가치의 무정부 상태 내지 사회적 규범의 결여는 이제 위기적 상황에 치달은 감이 없지 않다.

Allan Bloom은 미국 민주주의의(公共善)의 붕괴 원인을 미국 대학의 위기적 상황과 관련하여 논한 바 있거니와, 이 땅의 각계 각층의 구조적 부조리의 주요 원인으로 우리의 대학 현실을, 폭넓은 지성과 강한 도덕성을 지닌 엘리트 계층 및 겨레의 일체성 내지 연대 위에 구축된 문화의 창출이라는 대학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불모 현상을 든다면 지나치다

고 할 것인가.

그러면 왜 우리의 대학은 대학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에 관해서는 물론 갖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술산업화 사회에서 공통적인 전문학과 교양교육의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자.

2

유럽에서 17세기 근대과학의 성립 및 근대국가의 태동은 지난날 유럽 대학을 특징지었던 스콜라주의와 교양교육의 전통을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전문직 배출이 고등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전문지식을 갖춘 '직업으로서의 전문직' 창출이라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목표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기술산업 사회를 실현한 미국에서 특히 혁신적으로 구현되었으니, 19세기 중엽 이후의 많은 주립대학과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의 출현이 그것이다.

농학과 공학 중심으로 발족하여 농업국가 미국의 풍요와 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주립대학에 관한 논의는 그만두고, 21세기 한국대학의 변모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는 전문대학원에 관해 생각해 보자.

미국 최초의 전문대학원은 하버드의 Lawrence Scientific School(1847)이며, 최초의 대학원대학은 Johns Hopkins 대학(1873)이다. 미국 산업화에 대응하여 거의가 기업가를 패트론으로, 과학연구를 목적으로 세워진 이들 전문대학원은 학문 연구와 대학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지난날 대학이란 신학 연구 중심(파리 대학)이건,

신사(紳士) 계층의 교양교육 중심이건(옥스-브리지) 혹은 학문 연구 중심이건(베를린 대학) 순수이론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교수와 학생의 인격적 공동체였다. 그러나 이제 미국 대학에서는 응용과학이 중요시되고 학문 연구의 '직업적' 전문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대학의 변혁은 우선 대학의 권력 핵심기구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존스 홉킨스의 경우, 대학의 운영을 결정짓는 이사회 이사 12인 중 7인이 기업가이고, 4인이 법률가로서 교수나 목사 출신은 한 사람도 없었다. 존스 홉킨스를 본받아 많은 대학에서 기업가들이 대학의 중추기관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1920년대 이래 대기업에 의한 대학 간섭은 날로 증대되어 기업에 의한 지원금의 90%가 그 사용의 주도권이 총장이 아닌 기증자, 즉 기업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실을 바로 대기업에 의한 연구 그리고 교육까지도 침식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과학기술에 뒷받침된 산업화는 미국을 세계 제일의 부유한 국가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미국 사람들은 그 성취에 앞장 선 산업 기업가와 기술과학의 공덕을 잊지 않는다. 그리하여 전문가적 능력과 유용성이 미국 사회의 공공선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힘입어 1930년대의 '경영혁명'(managerial revolution)이 대학 캠퍼스까지도 휩쓸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리스도교적 신사의 형성'을 창학 이념으로 내세우며 인문학적 교양교육의 학풍을 자랑하는 하버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즉, 20세기 초 지방 재벌출신 총장인 Lowell(1909~'30) 아래 하버드에서는 Business school이 Low school, Medical school과 더불어 '빅 3'가

되고 일반교육-교양학을 전공하는 문리과대학원은 중간에 처졌다.

이제 산업상의 과학기술 개발과 그 전문가 양성이 대학의 지상과제가 되었다. 그 결과 시설투자, 대학간, 교수·연구원 간의 처우 및 학생의 장학금 간에도 큰 불균형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정부의 이른바 산학협동을 통해 더욱 촉진되었다. 대학은 이제 연구소의 집합체라는 인상을 짙게 풍겼다. 그리고 명문대학일수록 대기업이나 정부와의 공생관계를 즐겼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수들은 '뒷받침하며 다스린다'는 대기업과 정부의 큰 손길을 '좋은 일'로서 받아들였다. 그들은 학생지도나 강의보다는 연방정부 혹은 대기업의 고위층과 만나는 기회를 즐기고 교단에 서지않는(non-teaching) 교수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러한 연구와 교육 간의 불균형이 낳은 문제점과 함정은 이미 우리 대학사회에도 스며든 지 오래됨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

대학 내의 불균형은 연구와 교육, 바꾸어 말하면 전문학과 교양교육의 영역에서 가장 심각하였다. 하버드에서조차 연간 예산의 1/8이 교육에 투자된다. 여러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1961년도 지원을 예로 들면, 국방과학 40%, 기술개발 20%, 보건 37%, 사회과학 3%였으며 인문학은 전무였다.

유럽에서도 기계적 기예(技藝)는 순수이론인 인문학 중심의 자유학예와 대비되면서 우리 전통사회와 마찬가지로 경시되어 왔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수학적 확실성과 베이컨의 유용성을 모토로 하는 근대대학은 학문을 실제과학(Realwissenschaft)의 이름 아래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18세기 프랑스의 백과전서파에서 상징되듯이 유럽의 지성은 우리 전

통사회의 사대부 계층과 마찬가지로 인문학적 교양 위에 백과전서적 지식을 갖춘 교양인이요, 지식인이었다. 이러한 유럽적 교양과 지성의 전통은 20세기에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제1차 대전 이후 '미국의 세기'의 개막과 더불어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학문은 테크놀로지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문학의 성격이 강해지고, 자본집약적이 되는 한편에서는 철저하게 세분화되었다.

뉴욕의 코넬 대학은 대중의 대학을 표방하여 만인이 어떠한 학문 분야의 교육도 받을 수 있는 '만능 교과목의 이념'(the idea of 'all-purpose' curriculum)을 내세웠더니와, 그 이념은 특히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구현되었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Kerr 총장 시대(1958~'67)에 9개 캠퍼스에 학생이 10만 명을 넘고(그 중 대학원생은 3만 명) 교직원인 4만 명을 헤아렸다. 그리고 1백개소 이상에 걸쳐 활동을 벌이고 50개국 이상의 해외 프로젝트를 지녀 가히 세계적 규모의 다국적 기업과도 같다. 커의 표현 그대로 '두뇌의 도시국가'(idiopolis)라고 할 이 다원적 대학(multiversity)의 최대의 문제점은 그 규모가 아니라 거의 1만을 헤아리는 강좌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공학계의 교과목 253종 중에는 드라이-클리닝 공학이 있고, 218종이나 되는 교육학 계열에는 자동차 운전, 안전교육 등의 교과목도 있다. 호 텔학에는 친절학 강좌도 있음직하다.

학문의 전문성이란 그 특수성(Spezialisierung)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학문의 세분화가 그 자체 문제시 될 수는 없다. 조 선조 실록이나 중세 사본의 한 구절의 해석에 자신을 바쳐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자질 이야말로 학자의 참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대학 교사의 자의식이란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그것이요, 그러므로 그는 전문적인 업적을 통해 평가받고 보람을 느낀다.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학문』(1917)에서 말하였듯이 오늘날 가치있는 업적은 대체로 전문가적으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을 지낸 Hutchins가 지적하였듯이 미국 전문대학원의 많은 프로그램은 대학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들 속에는 사색을 요구하는 지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사회봉사가 대학기능의 하나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 도움을 준다고 반드시 대학에서 학습해야 할 필요는 없다. 만능 교과목의 어리석음이 대중화와 정보화 시대 속에서 대학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는 징조가 우리의 대학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좋은 대학의 징표는 대학이 학습하고 연구하기를 거부하는 주제의 수에 달려있다.”라고 한 리빙스톤의 말이 새삼 상기된다.

커 총장 스스로 다원적 대학을 '어중이 떠중이의 세대', '모순 투성이의 조직'이라고 혹평하였더니와, 사실 전문학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결과 대학이 맘모스화 되면서 대학과 대학사회에는 어느덧 일체감과 연대의식이 자취를 감추고, 비즈니스의 논리가 주도하다시피 하는 캠퍼스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기업체적 생산성과 유사한 업적주의(meritcracy) 지향의 대학 관리요, 운영이다. 그리고 학과간, 연구소간 그리고 교수 개인 간의 긴장된 이기주의적 할거주의이다. 이러한 전문학 내지 전문가적 할거주의는 교수와 학생의 자유로운 지적·교육적 공동체라는 대학의 본질이 망각된 데서

유래된 결과요, 그것은 또한 인문학-교양교육의 퇴색과 깊이 관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미국에는 영국·프랑스·독일의 대학과는 달리 학부 과정에 독립된 일반 교양과정, 즉 리버럴 아트 코스를 두고 있는 대학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나 일본 대학의 교양과정은 미국의 학제를 본받은 것이다.

교양교육이라는 미국적 개념은 원래 종교적·정신적 지향성이 강한 동부 상층계급의 지적 풍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아이비 리그 대학에서 뿌리를 내린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모든 연구종합대학에서 학생들은 학부에서 교양교육을 받은 뒤, 대부분이 전문대학원(school)에 진학한다. 물론 미국 대학의 대부분은 단지 기술적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대학이다. 1983년 당시 전문대학원 진학은 각종 모든 대학 졸업생의 8.9%로서 그들이 바로 미국의 엘리트 계층을 구성한다고 이해하여도 좋을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의 엘리트란 교양과 전문학을 고루 갖춘 인물들인 것이다. 지난날의 귀족적이었던 유럽적 교양의 개념과는 다른 전문학과 결부된 미국적-현대적 교양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정의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교양이란 직업교육과는 달리 개인을 전인적으로 개발함을 의미한다. 그의 인생의 목적을 도야하게 하고, 감정의 반응을 연마하며, 사물의 본질은 현대의 최고의 지식에 비추어 이해하는 힘을 육성하는 것이다.”(방점 필자)

미국에서 진정한 교양교육은 학부 4년 중

에서 처음의 1~2학년때 받는다. 1학년에서는 폭넓은 필수 교양과목(core curriculum)을, 2학년에서는 선택 교양을 이수하게 된다. 그리고 3~4학년 과정에서는 전문대학원에서의 전문학과 관련된 세미-전문학(영어·수학·심리학 등)을 받는다. 가장 핵심적인 교양교육은 문자 그대로 ‘코어’ 커리큘럼이다.

하버드의 ‘코어’는 학제성(interdisciplinary)을 기초로 종합된 지적 관점을 신입생들에게 심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6개의 과목군으로 구성되고 있다.

○ 문학과 예술

교양인에게는 ‘교육된 눈과 귀’가 특히 중요하다라는 취지에 따라 학생들은 「19세기 및 20세기초의 위대한 소설」, 「렘브란트와 동시대인」, 「현악4중주의 발달」, 「르네상스와 인간상」의 강좌를 들어야 한다.

○ 과학

과학의 방법과 원리의 이해는 오늘날 교양에 속하며, 그것은 책임있는 시민의 요건이요, 학문에의 ‘대도’이다. 그리고 교양으로서의 과학은 심미적·지적 가치가 크게 관련되어 학습된다.

○ 역사연구

역사는 우주나 사회 그리고 우리들 자신에 관한 지식과 이해력을 얻기 위한 분석방법으로서 가장 소중하다. 그 강좌에는 「러시아혁명」과 더불어 「개발과 저개발-국가간 불평등의 역사적 원인」도 있다. 그리고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나 유럽의 확대의 기원에 관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 사회분석

사회과학의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해 18세기 말의 경제학에서부터 최근의 정치학·

사회학·심리학과 더불어 현대사회의 조직과 발달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분석의 주요한 형태와 역사적·수학적 기술이 연마된다.

○ 외국문화

이 강좌는 인도·동아시아·러시아·이슬람·아프리카 등 지역의 '윤곽과 정신을 설명하는 독특한 사상과 행동의 패턴을 밝힘'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선택은 학생의 재량에 속한다. 지역에 관한 개론적 강좌와 더불어 「오스트리아의 문화-1890~1938」, 「일본의 통일-1560~1650년」 등 특수 강좌도 있다.

○ 도덕이론

이 강좌는 윤리나 철학 일반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의무, 공민권, 충성심, 용기, 개인의 책임 등에 관해 이성적으로 '깊게, 분석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가르침을 의도한다. 특히 개인, 단체, 국가 및 국가 간의 덕(virtue, morality)이란 무엇인가를 학습한다. 한 예로서 「그리스도와 도덕적 생활」 강의에서는 특히 폭력과 비폭력, 부와 빈곤, 개인도덕과 공동도덕의 관계를 배운다.

세익스피어를 몰라도 하버드를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적·분석적으로 고전문학을 읽지 않고서는 졸업할 수 없다. 경제학을 배우지 않아도 졸업된다. 그러나 사회분석의 기초에 관해 배우지 않고서는 졸업할 수 없다. 코어과정은 지식의 단순한 전수와는 무관하며 주요한 연구방법에, 다시 말하여 사물에 관한 종합적 이해, 비판적인 인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갖가지 과목을 기초적인 주제 아래 조직하고 종합함으로써 장차 전문학을 전공하고 전문직에 진출할 학생들이 폭넓은 지성을 갖추어 공통된 기반 위에서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는 교육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버드의 총장은 졸업식 때마다 “오늘부터 교양인이 되는 계기를 크게 환영한다.”라고 연설한다고 하거니와, 교양교육에 대한 하버드의 자부심, 아니 그 이상으로 인간교양을 지향하는 하버드의 학풍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미국 대학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커리큘럼의 변천의 역사요, 그 논쟁의 역사이다. 커리큘럼의 개혁은 대체로 25년마다 이루어지며 그 논쟁의 초점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특히 교양교육의 문제이다. 그만큼 교양교육은 중요시 되었다.

1905년 미국 역사협회의 대주제는 교양 역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토론은 서유럽사 학습에 합의를 보았다. 그러면 어느 시대를 취급할 것인가? 이 논의에서 견해는 약간씩 달랐으나, 회의에 참가한 모든 역사학 교수들이 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국 합의에 도달하였다. 미국의 교수들도 물론 자기자신의 전공학을 고집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속한 학과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학제(學際)의 중요성이 그 자신의 전공학을 보다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교수들은 '상호 계발코스'에서 전공을 달리하는 동료들과의 토론에 기꺼이 참가하며 그리고 전공을 달리하는 교수들과 교양과목 교재를 만드는 작업에 정성을 다하고, 그것이 또한 학계에서 학문적 업적으로 평가된다.

미국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중시는 그 담당 교수가 대체로 원로교수인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버클리의 경우 영어학과에서 원로교수가 신입생 코스를 가르치며, 하버

드의 경우 역사 초급 코스는 유명한 석학 Haskins가 실로 21년 간에 걸쳐 담당하였다. 버클리 의 경우, 화학과에서 입문코스를 가르치는 ‘권리’는 학과의 일류 멤버에게만 인정되는 명예가 되고 있다. 사실 교양교육의 성공 여부는 전문학을 초월한 명실공히 교양교육을 교수할 수 있는 지적·인간적인 성숙함을, 고도의 창조성을 갖춘 교수를 확보할 수 있으나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교양교육은 어떠한가. 이 땅의 대학에서도 교양과정이 설정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과연 얼마만큼 교양교육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의 경우, 대학 강단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강의는 ‘교양문화사’였다. 대학원을 막 수료하면서 미국의 원로교수들이 누리는 ‘특권’을 누렸던 것이다. 이러한 어리석고 무책임한 강좌 배정은 오늘날에도 별로 변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교양문화사가 단순히 세계문화의 백과사전적 지식의 나열로 가르쳐지고 있다고 할 것이며, 사실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사 서적은 거의가 지식 나열로 메워지고 있다. 그러면 교양영어, 교양국어는 과연 얼마만큼 단순한 글자풀이에서 탈피하고 있을까. 교양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양’이라는 주제 의식, 문제 의식일 것이다.

전문학과 달리 교양교육은 결코 지능개발의 학습일 수 없다. 그것은 ‘교양’(culture, Bildung)의 명칭 그대로 문화 전반에 관련된 그리고 ‘사람됨’의 교육이다. 유럽적 전통에서 교양교육의 핵심은 수사학과 철학, 즉 인문학(humanities)이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목적은 ‘humanities’, 즉 ‘사람됨’이었다. 그러므로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humanist’라고 불리어 왔다. 교양

교육의 기본 주제란 바로 ‘문화’의 문제요 ‘사람됨’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담당교수는 그의 전문학이 무엇이건 문화의 입장에 선 휴머니스트여야 할 것이다.

지난날 우리의 유학적 전통사회에서도 지식(학문)과 교양(사람됨)은 분리되지 않았으며, 그럼으로써 교양과 학식을 겸비한 선비계층과 그들을 중심으로 한 예(禮)의 문화와 질서가 면면히 이어졌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어떠한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1백교를 넘는 4년제 대학과 그에 비등할 2년제 대학이 있다. 그리고 그 학생 수로 말하면 170만 명, 우리도 대중대학 시대에 진입한 지 오래된다. 그러면 우리의 대학은 연구와 교육의 터전으로서 과연 그 사명을 훌륭히 다하고 있는 것일까. 학문 연구에서 세계학계와 겨루어 우리의 수준은 어떠한가, 그리고 건전한 시민 계층과 폭넓은 지성과 교양을 갖춘 엘리트 계층을 창출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의 대학사상 가장 중대한 전환기에서 이제 대학사회와 대학인 모두가 겸허하고 엄밀한 자기검증을 다할 시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광복후 우후죽순처럼 많은 대학이 생겨났으며, 특히 1960년대 산업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경제발전과 교육의 명제 아래 ‘과학 교육진흥법’이 제정(1967)되었다. 전문훈련(specialized training)이 대학의 주요과제가 된 것이다. 기술산업화 중심의 근대화를 지향하는 개발독재 주도의 고등교육 정책은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른바 실험대학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입학정원(문과계에서 이과계 중시, 지방대학의 증원), 입학예비시험제도, 졸업학점의 축소, 계열별 학생모집, 부전공제 등이 도입되었다.

이상과 같은 그간의 개혁안은 우리의 대학사회가 지녔던 갖가지 쌓인 부조리와 시행착오를 교정하는 작업이 아니면, 급격한 산업화에 수동적으로 단행된 긴급수술과 같은 것이었다. '70년대 고등교육 개혁 방안은 대학 간의, 대학과 산업 혹은 정부기관 간의 협력체제 수립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러나 모든 개혁은 연구와 교육의 터전이라는 대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른바 제2경제론, 민족적 민주주의, 국적있는 교육이라는 의사(擬似) 이데올로기가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교육 이념이 되고, 심지어 연구영역에까지 침투하였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하다. 그간의 모든 대학 정책이 대학과 대학인의 책임있는 논의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양식 있는 국민적 합의 없이, 해외에서 기술적 교육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소수 기술전문가 그룹과 교육관료의 합작이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과응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요즘의 대학개혁 작업과 대학평가 논의는 이 땅의 대학이 지닌 본질적인 문제성에 얼마만큼 초점을 맞추어 행해지고 있을까. “훌륭한 대학을 만드는 일은 국가를 만드는 일보다도 더 어렵다.”고 한 어느 대학사가(大學史家)의 말이 새삼 실감이 난다.

오늘날에도 이 땅의 초등교육은 생도들의 책가방이 말하여 주듯이 지능 편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또한 영·수 학원과 같은 인상이 짙다. 이 모든 현상이 대체로 대학 진학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몇 해 전부터 논술시험이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한 학제의 개편이나 학습 방법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 대학문화와 강의실 풍경은 어떠한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한 노력을 우리들은 얼마만큼 다하고 있을까. 단순한 지식 전수의 전근대적 관행이, 그것도 현대판 과거제도라고 할 갖가지의 시험제도를 위한 지식 전수의 버릇이 타파되지 않는 한, 우리들은 학생들을 노래방이나 이른바 주체사상에 빼앗길 것이다. “생생한 학문 정신은 하나의 전체로서의 관련 속에서만 실존한다.”고 한 칼 야스퍼스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인간과 문화 전반을 지향하는 인문학-교양교육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단순한 지식, 즉 전문학이란 ‘빵을 위한 학문’일 뿐, 그것은 ‘전문 바보’를 낳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더욱더 ‘욕망의 체계’로 몰고 갈 것이다. 전문학이란 무엇이고, 인문학-교양교육이란 무엇이며, 대학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가 재검토할 때라고 할 것이다. ■

이광주/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연구하였으며 충남대와 전주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지식인과 권력』, 『유림사회 풍속산책』 등이 있다.